

통상임금 기준, 大法 전원합의체가 결정할 듯

오토바이 날치기 범 검거

영등포서 순찰차 2km 추격 양천서 관내에서 검거

일선 법원서 판결 엇갈리자 회부 여부 검토중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상여금 포함 여부 판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노사(勞使)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이 이 문제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칠지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12명)이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최고 재판부다. 대법원은 중요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새로운 판례를 확립할 때 전원합의체에 부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일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봤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3월 대법원이 대구 시내버스 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무성과 상관없이 재직 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봤기 때

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초과근로수당은 물론 퇴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재계 및 사측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계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의 일시적 부담 비용이 38조원을 넘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 기관 및 공기업이 더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총 12조원에 이르는 전망도 나왔다. 여러 기업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수당 인상분을 달라는 소송을 줄지어 냈다. 이달 9일에는 인천지법에서 삼화고속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근로수당과 식대수당·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은 포

함되지 않고 근로수당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과 달리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35)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해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데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과 인천지법 사건은 내용이 조금 달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에서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나와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지만, 인천지법 사건에서는 지급 금액이 정기적이지 아니었기에

상여금이 아니라고 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가 결국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1995년 과거 노조의 파업 기간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으로 번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려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다루는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총 11건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서장 남병근)에서는 5월 22일 05:50경 "인천계양서 관내에서 날치기가 발생하여 구로서 관내를 거쳐 영등포서 관내로 도주하고 있다"는 112종합상황실의 무전지시를 받고 순11호(중앙), 순12호(중앙), 순19호(양평), 순20호(양평) 4대를 출동시켜 날치기범을 검거하였다. 순찰차는 양평동1가 164-22 양평파출소 앞 노상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2동 117-34 남해수산 노상까지 약 2km가량을 달려 순20호(양평) 근무자 경사 유창용 외 1명이 용의자 2명을 검거하였다. 용의자중 1인은 양평파출소 경사 유창용이 가장 먼저 제압하여 수갑을 채워 영등포서 순20호(양평)에 탑승시키고 다른 용의자 1

명은 영등포서 순11호(중앙) 근무자 순경 김득용이 검거하였는데 검거현장으로 출동한 구로경찰서 경찰관이 "구로서에서 발생한 날치기 사건이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하여 순20호(양평)에 탑승시켰던 용의자 등 2명을 구로경찰서 순찰차에 인계했다. /본사기자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 치안정책 주민설명회 열어



▲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4대역 근절 등 안전한 서울 위한 '서울경찰 치안정책 주민설명회'에서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설명회의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4대역 근절과 안전한 서울 구현을 위한 '서울경찰 치안정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영등포서를 비롯해 서울 서남권역을 관할하는 양천경찰서와 강서경찰서가 공동 개최했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영등포서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유공직원 및 협력단체 표창, 서남권역(영등포·양천·강서) 경찰서장의 업무보고, 서울청장 말씀, 주민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남병근 영등포서장은 "안심 주는 치안활동을 전개해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개 경찰서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앞으로의 치안정책은 계획발표가 아닌 정책 집행과 그 결과에 따른 변화상에 중점을 두겠다"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주민을 모셔 4대역 근절과 범죄예방 문화 구현의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우회, 경찰

발전위원회 등 경찰 협력단체뿐 아니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지회, 장애인사랑나눔집 등 NGO단체의 대표도 초청돼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이라는 서울경찰의 비전과 역점 추진 정책에 대해 공유했다. 한편 서울 31개 경찰서를 10개 권역으로 편성해 서울청장이 직접 방문하는 주민설명회는 지난 20일 중부경찰서에서 시작해 영등포서에서 2번째 시간을 가졌다. /김영범 주성결 기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서울동작경찰서 www.smpa.go.kr/dj

-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 -

4대 사회악(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근절 서울동작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신고전화 : 02-813-0112, 국번없이 112

4대 사회악 No
...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 ...

서울동작경찰서 생활질서계 손강희 경위 제공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 대림동 순찰



이날 김청장의 대림동 방문에는 영등포경찰서 남병근 서장이 동행하여 대림파출소 김진문소장으로

부터 대림동지역의 치안사업현황에 대한 소개를 듣기도 했다. 특히 김청장 청장은 이번 대림동

방문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대림파출소의 순찰직원만 동행한 후 직접 근무복을 입고 시장골목과 동포들의 밀집지역에서의 치안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김청장 청장은 자정이 지나서야 이날 방문을 마치고 대림파출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청장은 보여주기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그 해답을 찾으려는 의지가 담겨있어 앞으로 대림지역의 치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본사기자

심양시 소가툰구 신흥툰조선족촌이 재한 중국동포들의 입주를 환영합니다!

절호의 기회! 적합한 가격! 2780원 /㎡ 부터

정부중점개발구역, 건축미학의 거작



신흥녹색정원주소: 심양시 소가툰구 립호로 (臨湖街道) 신흥툰
판매처 전화: 02-2637-0814, 86-133-0404-0498

소가툰신도시의 집값이 또 한번 증진하고 있고 편리한 도시교통과 주변지역의 신속한 발전으로 전혀 없었던 가격인상공간의 가져왔다. 또한 주택구조면에서는 환한 실내구조, 탁 트인방, 한국식 온방보일러 등이 특징이다.

편리한 교통, 20분내 시중심 도착

심양시 지하철 10호선 이 건설되면 시중심까지 20분, 신흥툰에서 심양시내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324, 327, 333, 334 등 많은 교통선로가 마련되어 쇼핑센터, 오락센터, 의료센터에 직통할 수 있다.



편리한 교육시설

소가툰구조선족중심소학교, 심양시조선족제2중학교와 2킬로미터 상거해 있어 아이들의 통학에 편리하다.

편리한 생활환경, 생활시설 완비

1,500여평방미터의 로인활동실, 2,500여평방미터의 마을회관이 있고 동북3성에서 모여온 천여호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어 마을내에서 조선족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